개 회 사

다음은 지난 12월 19일 본회가 마련한 "간호와 일차 건강관리"에 관한 세미나의 내용으로 W.H.O. 서태평양지역 일차건강사업 고문관인 이경식 박사와 국제간호협의회 전문간호사업위원회 위원인 하영수 박사의 강연내용이다. <편집자주>

간호와 일차건강관리

김 모 임
<본회 회장 보건학박사>

오랫동안 건강은 질병을 퇴치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병원이 건강을 이룩하는데 주동적 역할을 해왔읍니다.

즉, 의료인이나 사회인 다 함께 범한 오류는 건강관리를 위해 쓰여질 최후의 수단을 최초의 수단으로 오인함에 따라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장 비싼 댓가를 치루고도 건강을 얻지 못하는 현상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의료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이는 우리의 것이 못되고 소수의 것에 국한되고, 이 뿐만 아니라 병자는 게성을 떼어 놓은 Case로 전락되고, 의료를 주는 자와 받는 자와의 인격적 관계가 소홀하게 되었읍니다.

이런 현상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더욱 구별하게 되었고,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건강관리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읍니다.

이는 세계 평화를 해치는 근본 문제가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적, 국제적 노력의 하나가 요사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일차건강관리이며, 이 일차건강관리야말로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용납될 만한 수준의 건강관리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관건(Key)으로 WHO와 UNICEF, ICN등 많은 유엔 및 국가기관이 인정하게 되었읍니다.

간호원이 이제까지는 이차진료 차원에서의 보조적 기능으로서 없어서는 안될 의료인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로 인해 전문인이라기 보다는 기술 보조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읍니다.

이 낙인으로 인해 간호 인력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한 따라서 간호의 활동 영역은 계속 위축당하고 있는 역사를 낳았읍니다.

간호가 이렇게 간호로서 그 기능을 다 못함으로 인해 건강관리는 물론 없었으며, 보건의료마저도 바로 제공되지 못했으며, 진료사업만이 있는 현상을 가져왔읍니다.

이런 현상은 많은 보건학자는 보고, 여성의 지위가 잘 보장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간호가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도가 낮고, 따라서 건강관리 개념이 바로 적응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건강관리가 형평을 이루지 못한 큰 이유는 간호인력(여성인력)의 활용이 바로 되지 못한데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진료의 차원과 달리 건강관리는 간호가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읍니다.

이제는 일차건강관리가 세계보건정책으로 굳혀있고, 이에 따라 국가시책화할 것임을 예측할 때, 일대전환기를 맞을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길을 정하고, 일차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간호 인력이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므 자타가 함께 인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시기에 우리나라 간호원을 대표하여 지난 일년동안 WHO라는 국제무대에서 특히 일차건강관리 고문관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 경식 박사를 모실 수 있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의 일차건강 관리와 간호에 대한 관찰과 자문경험을 통해 얻으신 통찰의 말씀이 우리나라 일차건강관리를 위해 우리 간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방향제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ICN이라는 간호국제사회 속에서 간호전문위원회위원으로 우리나라 간호원으로는 처음 활약하시는 하영수 박사께서 일차건강관리에 대한 ICN의 정책방향에 관한 간호전문위원회합 보고를 해 주심은 우리가 ICN의 회원국의 일원임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세미나는 협회가 그동안 가진 어떤 세미나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이렇게 몸소 몸 담아 일하셨던 협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강연을 맡아주실 것을 허락하신 이박사님과 멀리 geneva의 고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학교 일이 산적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주신 하박사님께도 진심으로, 협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세미나가 우리나라 간호사업의 전망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간호와 일차건강관리의 관계에 따라 현 교육제도와 간호 사업전달 및 행정체제에 계획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위해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로 바쁘신 시기입니다. 그러나 간호에 대한 사명과 간호를 위한 협회활동에 호응하며 이렇게 많이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의 열의를 감사하며, 이 열의가 있는 한, 간호사업은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미나를 통해 얻음과 논움이, 풍성이 있으시길 빌며 개회사에 대합니다.